

11. 20

정관개정위원회

정관개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정관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주요쟁점인 치의학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해 논의한 이날 회의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정관의 개정에 초점을 모아 위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정개위는 정관개정에 있어 문제가 되는 몇가지 사항을 빼놓고는 대부분 조정작업이 순조롭다는 판단 하에 내년 총회 전까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가능하면 위원회 자체의 단일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11. 22

전국 지부장회의

제2회 전국 지부장회의가 지난 11월 2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지부장회의에서 이기택 협회장으로부터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와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 개최, 국사에서 예비시험 제도 도입 등 치과계 현안문제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치주자율지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가 경제대란을 맞이하여 치과계부터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내용의 시국결의문을 채택했다.

11. 29

구강보건과 부활

지난 11월 29일 관보에 발표된 대통령령 제1552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에 의해 복지부 보건국내 구강보건과가 새로 신설됐다. 구강보건과는 2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7명이 근무하게 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구강보건과에서는 구강보건 정책의 기획·조정, 구강보건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구강보건의 조사·연구, 구강보건의 교육·홍보, 학교 및 사업장 구강보건 사업의 지원, 구강보건 사업의 지도·평가 등 6대 주요 구강보건사업을 관장하게 된다.

12. 2

치협·치재협 간담회

치협과 치재협은 지난 12월 2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어렵게 전개되고 있는 치과계의 흐름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난국을 풀어나가기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에 뜻을 같이 했다.

간담회에서 치재협 오동현 회장은 지난 9월 개정된 법규와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환율 등으로 인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치과기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며 치과의사협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12. 6

이기택 협회장 지부 순방

이기택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회장단의 지부순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장단은 서울, 경기, 대구, 인천지부에 이어 지난 6일 제주지부를 방문, 집행부 업적과 치과계 현안문제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협회장은 지난달 29일 구강보건과의 설치가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이 최종 확정됨을 알리고 전회원들의 염원이 이루어져 기쁘다며 구강보건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협 회장단의 지부순방은 광주, 대전, 경북 등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1. 8

이기택 협회장 박세일 사회복지수석 면담

이기택 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장들은 지난 1월 8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청와대 박세일 사회복지수석과 회동을 갖고 최근 의료인력 수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료계 대학 신설 인가 및 입학정원 결정을 교육부에서만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현재대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로 결정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

1. 9

신년교례회

지난 1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치협 신년교례회 및 구강보건과 부활 축하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택 협회장, 김정균 명예회장, 지헌택 고문 등 치과계 인사 뿐만 아니라 황규선, 김영환, 손학규, 김병태, 서상목, 이영순, 오대규 등 정·관계 인사를 비롯, 2백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1. 18-23

제20차 아태회의(APDC)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태회의(APDC)에 참가하는 한국대표단 이기택 협회장과 조행작 국제이사가 18일 출국했다. 대표단은 대회기간 동안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2002년 제24차 아태회의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